

## 글로벌 개방시장을 위한 아시아의 역할



좌장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개회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토론	레이즌 샬리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완 사이틀 완 잔 말레이시아 민주경제문제연구소 대표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리	펫 자루이파이본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지역 프로그램 매니저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은 1958년 진후 서독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오늘 세션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과 아시아경제자유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은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집단과 개인을 후원하고 있다.

— **김영한** 억만장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계의 개방시장 제도가 미국의 육체노동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육체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이성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이성적이다. 그들은 미국에 실효성 있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세계 개방시장에서는 승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위협은 얼마나 심각한가? 매우 크고, 재앙적인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번지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처럼 전 세계적 무역전쟁이 다음 단계에서 발생한다. 현재의

일방적인 미국의 시장 보호조치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보복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가능한가? 그것은 자기파괴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자유무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비효율적 부문으로부터 효율적 부문으로 재원이 재분배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 **레이즌 샬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요점은 세가지다. 우리는 특히 무역에 있어서 글로벌 경제에 속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이며, 셋째는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고,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GDP 대비 무역량은 2006년 이후로 증가하지 못했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역은 왜 둔화되었는가? 단순히 세계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중국과 같은 시장 개방의 대

상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시장자유화 시대는 지난 것인가? 그렇다면 장래에 무역은 더욱 침체될 것이고 이는 수출의존 경제에게 매우 나쁜 상황이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보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인가의 여부다. 가장 현저한 위협은 미국과 유럽에서 포퓰리즘적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 대한 입장, 중국 때리기 그리고 양자무역에 대한 집착이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경제론이거나 아니면 '대중적 국제주의'로 위협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도 상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시장보호주의가 부상할 것인가 여부다. 이러한 무역 보복이 일어난다면 세계의 가치사슬과 세계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음울한 시나리오는 1930년대의 불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완 사이틀 완 잔**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 개방시장으로부터 혜택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개방무역과 시장자유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TPP, 아세안경제공동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개방에 항상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존재가 강해질 때는 반작용과 저항도 강했다. 예를 들어 TPP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허용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물러가자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 **존 델러리**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풀고 온 폭풍

을 뚫고 나가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능동적 아이디어가 있는가?

— **레이즌 샬리** 중요한 대항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TPP 탈퇴에 대한 저항세력을 제외하면, 상쇄력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그대로이고,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난 것도 아직 아니다. 상쇄적 요소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들은 복잡한 국제 가치사슬에 긴밀히 얽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롯되는 잡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 **완 사이틀 완 잔** 더 이상 외부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 과제에 매진해야 한다. 중국은 어떠한 개혁 과제도 제시하지 않는다. 중국의 엄청난 투자는 또한 많은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60년간의 특정 정당의 집권을 연장시키고 있다.

— **레이즌 샬리**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국내역학과 국제역학이 혼합되어 일어난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많은 독자적 개혁을 목도해 왔지만 그것은 세계질서와 지역질서를 만들어 낸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다자기구 내에서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는 세계 및 지역 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외국의 반자유주의는 국내의 반자유주의를 강화한다.

— **완 사이틀 완 잔** 반자유주의의 부상은 자유주의의 부상과 공존해 왔다. 반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시장자유화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정치의 추진력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 **존 델러리** 간단히 TPP와 RCEP에 대하여 물어보겠다.

— **김영한** 한국은 이미 TPP와 RCEP 회원국 대부분과 양자 간 협약을 맺고 있다. 일본은 예외인데,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 효과로 이 다자간 협약이 한국에 제한된 효과를 드러내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레이즌 샐리** TPP와 RCEP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강한 무역협약이다. TPP에서 탈퇴한 것은 미국에게는 정말로 큰 손실이다. 미국이 협약을 실행하면 회원국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지도력 없이 이 협정이 진행될 것인가? 이것은 일본의 지도력에 달려 있다. 또한 미국이 4년 내에 가입하리라는 전망도 있고 영국도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RCEP는 아시아에서 다른 자유무역협정의 형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 **완 사이폴 완 잔** RCEP은 거의 결정된 사안이지만 그리 확실하지는 않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욱 관심이 있다.

— **존 델러리** 글로벌 개방시장에 대한 아시아의 기여라는 주제에 대해 마지막 발언 부탁한다.

— **완 사이폴 완 잔** 자국의 개혁에 매진해야만 아시아는 세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혁을 독자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

— **김영한** 대화는 다자기구를 재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자기구는 실질적이고 곧바로 실현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가 무역전쟁을 예방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

#### Keywords

아시아, 트럼프 정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중국, 세계무역전쟁, 다자주의, 글로벌 개방시장, 자유주의 경제질서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트럼프 정권은 글로벌 개방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는 지난 70년간 미국이 아시아에 제공해 온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허무는 경향을 보임.
-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는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안보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필요함.
- 중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내세울 것이나 심각한 취약성도 지니고 있음. 중국의 지도력은 위험하고 최악의 자본주의 형태이며 유럽연합은 중국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
-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는 서로 간에 치고받기식 보복이 발생한다면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재앙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임. 그러나 오늘날의 복잡하고 서로 맞물린 국제 가치사슬과 미국내의 다른 상쇄요소로 극단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함.

## 트럼프 행정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통합의 지정학적 함의



사회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부장
발표	말콤 쿡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선주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자카나스 판다 인도국방연구소 연구위원 테라다 타카시 일본 도시사대학 정치학부 교수
정리	노유경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 연구원

— **말콤 쿡**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는 지역경제통합의 주역으로 중국이 주목을 받게 만들었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의 가장 유망한 디딤돌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RCEP를 FTAAP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데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까지의 RCEP 협상으로 미루어 볼 때 협상의 결과 전반적인 시장 개방 효과는 평범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RCEP을 논의하는 국가 중 가장 큰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 간 정치적 견해차 및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약하고 복잡한 RCEP은 추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RCEP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가 TPP 논의의 차

체를 끝내진 않았다. 일본과 호주와 같이 TPP와 RCEP 모두에 속한 국가들은 TPP의 기준을 RCEP 협정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비TPP 회원국인 RCEP 국가들은 이에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테두리 안에서 FTAAP가 추진될 경우에 미국의 관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넷째, TPP, RCEP, FTAA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 협정이 중국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아닌바, 중국이 경제적 규모에 비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또는 일대일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강선주** TPP는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 메가 FTA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지적재산권,